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독일월드컵 D-24

■ 글 싣는 순서
1 아드보카트호 출항
2 주요 경기 '빅 5'
3 G조 주요 병기들
4 독일을 빛낼 새 별들
5 프랑크푸르트를 가다

토고-아데바요르 기량 회복
프랑스-앙리 승승장구
스위스-프라이 수술 후유증

84. 2. 26일생
190cm, 76kg
클럽:아스날(잉글랜드)

77.8.17/188cm, 80kg
클럽:아스날(잉글랜드)
A매치:75경기-35골

79.7.15/179cm, 74kg
클럽:렌(프랑스)
A매치:42경기-23골

'프랑스는 쾌청, 토고는 흐리다 갬, 스위스는 아직 흐림'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한국과 같은 본선 G조에 속한 토고와 프랑스, 스위스의 주요 병기들은 어떻게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을까.

티에리 앙리, 다비드 트레제게(이상 프랑스), 에마뉘엘 아데바요르(토고), 알렉산데르 프라이, 필리페 센데로스(이상 스위스) 등 각국 주요 병기들은 출전 여부에 따라 팀 전력이 좌우될 정도로 간판 선수지만 현재 기상도는 제각각이다.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의 주전 스트라이커 앙리(아스날)는 연일 승승장구다. 2005~200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24골로 득점왕을 예약했고 팀을 사상 최초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 놓는 등 펄펄 날며 독일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앙리와 함께 프랑스의 투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트레제게(유벤투스)도 이번 시즌 22골을 폭발시키며 이탈리아 세리에A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같은 활약에 힘입어 소속 팀이 2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어 지난 시즌에 이어 리그 2연패가 유력하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꺾어야 할 토고의 간판 골잡이 아데바요르는 올 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전후로 전 소속팀 AS모나코에서 퇴출설이 나오고 스티븐 케시 전 감독과 불화설이 터지는 등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잉글랜드 명문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190㎝의 큰 키에도 스피드와 발 재간, 슈팅 능력 등을 골고루 갖춰 한국의 경계대상 1호인 아데바요르는 13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일찌감치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에 반해 스위스 선수들은 여전히 찌푸린 날씨다.

독일 월드컵 유럽 예선 10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주 득점원으로 자리잡았던 프라이(스타드 렌)는 지난 2월 서혜부 수술을 받고 최근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장기 결장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제 감각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비의 핵심 센데로스(아스날)마저 지난 달 22일 이영표의 소속팀 토튼햄과 경기에서 무릎을 다친 뒤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부터 정규리그 2경기까지 3경기 연속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들 "자신있습니다" 15일 파주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한국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장 이운재(왼쪽)와 박지성(가운데), 이영표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서운 토고…공격적이다"

"확실히 좋아졌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변했다"(이천수) "오른쪽 윙백이 매우 공격적이다"(설기현) "상상 이상이다. 탁월한 스피드가 인상적이다"(황선홍 SBS해설위원) 지난 14일 파주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 첫 소집훈련을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태극전사들의 눈은 일제히 TV로 쏠렸다. 바로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G조 조별리그 첫 상대인 토고의 평가전을 보기위해서였다.

이날 경기에서 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0-1로 패했지만 경기를 보고 난 태극전사들의 소감은 한결같았다. 토고의 전력이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과 네이션스컵 때보다 한 단계 향상됐다는 것.

■ 사우디전 평가

"스피드 탁월"

특히 태극전사들은 오른쪽 윙백으로 나선 마망 셰리프 투레(FC메스)를 이구동성으로 '요주의 선수'로 지목했다.

토고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공격의 핵심' 에마뉘엘 아데바요르(아스날)가 빠진 힘겨운 상황에서도 탁월한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 연결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했지만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허용해 0-1로 석패했다.

이천수(울산)는 "경기를 끝까지 봤다. 토고의 전력이 네이션스컵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공격수들의 드리블이 빠르고 위력적이다. 중앙 수비를 맡았던 창가이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투레와 맞붙게 될 아드보카트호의 왼쪽 윙백 이영표는 다른 선수들보다 분석적으로 토고전을 지켜봤다.

이영표는 "토고 선수들은 키가 크고 공격수들 역시 모든 능력을 갖춘 것 같다.흑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전형적인 스타일을 구사했다"며 "한국은 조직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공격할 때 2대1 상황을 만들어 수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의 월드컵 첫 상대인 토고 대표선수들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 앞서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